

재택치료로 뇌 인지 기능 회복 가능성

전북대 고명한 교수팀 비침습적 경두개전기자극치료로 뇌졸중 환자 상태 좋아져 수술적 처치 없이 두피에 전극 부착 뇌 안으로 전류 흘러 뇌세포 기능 호전

앞으로는 뇌졸중으로 인해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집에서 편하게 뇌 인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학교 고명한 교수(재활의학 교실)팀이 재택치료로 비침습적 경두개전기자극치료'를 실시, 뇌졸중 환자의 뇌 인지 기능이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화제다.

이 연구 논문은 해당 분야 최상위 국제 학술지인 '스트로크(Stroke, 인용지수 10.17, 인용퍼센트 상위 0%)' 최신회에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인지기능의 저하를 초래한 뇌졸중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의료가기기업에서 개발한 비침습적 경두개전기자극치료를 두피에 부

착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인지 훈련을 매일 30분씩 주 5일 총 4주간 실시해 대조군과 비교한 것이다.

결과 분석은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MoCA) 점수로 이뤄졌다. 대조군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치료군에서는 치료 전 18.7점에서 치료 후 21.3점으로 약 14%의 호전을 보였다.

치료군 중에서도 특히 인지기능 저하가 심했던 환자군을 모아 분석한 결과, 치료 전 13점에 비해 치료 후 17점으로 약 31%의 치료효과를 보여 인지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침습적 경두개전기자극치료는



고명한 교수
최근 대두되고 있는 뇌기능 호전 치료방법으로, 피부를 절개하거나 수

술적인 처치를 하지 않고 평상시 그대로의 상태에서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 뇌 안으로 전류를 흘러 뇌세포의 기능을 호전시키는 새로운 재활 치료 방법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팬데믹으로 의료 기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진의 비대면 감시하에 환자가 재택치료로 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치료 효과를 얻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고명한 교수는 "뇌졸중으로 인해 손상 받은 뇌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약과 같은 다양한 전문재활치료를 통해 뇌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며 "최근 비대면 의료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택치료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모바일헬스앱으로 비전염질환 체크하는 캄보디아 주민.

비전염성질환 체크 모바일헬스앱 캄보디아 현지 주민 전염병 관리

전북대, 지난해부터 건협과 함께 개발... 올해부터 대상 확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해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전염성질환(NCD) 관리사업'을 통해 모바일헬스앱을 개발, 현지 주민의 지속가능한 비전염성 질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북대와 건협이 2022년부터 3년간 한국 대외무상원조 전달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손혁상)의 민간협력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프놈펜에 보건의로 사업단을 파견해 캄보디아 프놈펜노우 miHealth를 활용한 NCD(비전염성질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 주민의 높은 휴대폰 소지율을 고려해 개발된 모바일헬스앱은 비전염성질환 고위험군 추적관리와 자가 건강관리 실천 교육 등 건강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향상을

통해 프놈펜노우의 지역주민의 비전염성질환 유병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건강검진을 통해 선별된 300명의 비전염성질환 고위험군에게는 마을보건요원이 직접 방문해 건강검진 데이터, 길은 수, 진료예약 등을 기록·확인한다.

이를 통해 비전염성질환 고위험군 추적관리 대상을 올해 450명, 내년 600명 등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의 국내 사업책임자인 양영란 교수(간호학과)는 "건협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바일헬스앱을 개발해 프놈펜노우 지역주민 자가 건강관리 실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건협과 더욱 끈끈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전염성질환의 예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료

전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최근 2023년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기 집합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58명이 참여했다.

이 연수는 교육경력 3년 이상의 공·사립 유치원 교사가 대상이며, 교육과정은 기본소양과 전문역량으로 진행됐다.

기본소양 과정에서는 1급 정교사의 역할과 자세, 전라북도 유아교육 정책과 과제, 청렴한 교직문화의 실현 등을 전문역량 과정에서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미래유치원 공간 연구 및 미래교육 사례, 유아 환경교육의 방향 등으로 이뤄졌다.

박순정 원장은 "이번 자격연수에 참여한 유치원 교사들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 실현을 위한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들의 꿈을 키우는 미래 교육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이 지난 13일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병군사학교를 방문해 동계입영 훈련 중인 학군사민후보생들을 격려했다.

“한 단계 성장 계기 삼아 훈련 임해 주길”

남천현 우석대 총장, 학군사민후보생 격려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이 지난 13일 충북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병군사학교를 방문해 동계입영 훈련 중인 학군사민후보생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입소한 우석대 학군사

관후보생 48명은 분대 전투와 사격, 독도법 등 전술·전투기술 훈련을 받고, 오는 19일 퇴소할 예정이다.

남천현 총장은 "훈련을 잘 이겨내고 있는 우리 후보생 여러분이 자랑스러

다"며 "힘든 시련과 고통이 있더라도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 열심히 훈련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남 총장은 이의용 학군단장, 조익석 ROTC 동문회장 등과 함께 육군학병군사학교장인 권영현 소장을 만나 육군학병군사학교의 현황 청취와 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장교양성 과정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은성 기자

행안부 기록관리

기관평가 '우수'

무주교육지원청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은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달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 유형별로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다. 2022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38개 정부신(하)공공기관 등 총 2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13일 무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기록관리 업무기반 및 업무추진 분야, 기록관리 중점 추진분야 모두 우수한 것으로 인정, 최고등급을 받았다.

특히, 단계적 예산확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록관을 별도의 건물로 신축하는 새로운 모형의 기록관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그 결과, 전국 교육지원청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 기록관리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김승기 교육장은 "기록관리 선제적 인프라 마련으로 교육행정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기록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무주=전문성기자

전주대, 2023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108명 합격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교육부 교원임용시험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서, 2023년 중등교사 임용 제1차 시험에서 108명이 대거 합격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범대학은 임용시험 외에도 교육행정직 공무원 공기업 등 진로 다양화로 지난해에는 영어교육과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 11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전라북도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노승범 학생(영어교육과 4년)은 "수험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자 노력했다"며 "교수님께서 수업 때 해주신 여러 조언을 듣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포기하지 않고 공부부를 이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시험이든지 합격생

은 존재하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범 대학장은 "전주대학교 학생들의 진로 다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스펀디 및 학교 활동을 헌신적으로 지원하는 사범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새로운 가족 되다”

전주대 외국인유학생 6명 더은누리교회와 결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2일 더은누리교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가정을 맺어주는 '호스트 패밀리(Host Family)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연식을 통해 6명의 전주대 유학생은 더은누리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됐다.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2일 더은누리교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가정을 맺어주는 '호스트 패밀리(Host Family)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호스트 패밀리(Host Family)'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을 찾은 유학생들과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유학생 다오민토아 씨는 "4년간 대학 생활 후 졸업과 동시에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F-2-R)으로 취업의 기회가 주어졌다"며 "사회초년생으로 걱정이 많은데 호스트 패밀리

를 통해 조언과 관심을 받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혜금 국제교류원장은 "우리 지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유학생들의 가족이 돼 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도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은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1:1 취업 컨설팅, 산업체 현장 견학, 취업역량교육 등을 통해 졸업 후 국내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설 앞두고 '청탁금지법' 안내

도교육청, 부정청탁 예방·청렴도 향상 위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설을 앞두고 부정청탁을 예방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경우 5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 선물은 20만 원까지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없다.

노경숙 감사관(직무대리)은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교육을 통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방송통신중·고 신입생 모집

오늘부터 내달 17일까지... 무시험 서류 전형·연장자 우선

전주·전주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도 신·편입생 모집 중졸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등 지원 가능... 선착순으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라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졸업 및 동등 학력 소지자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다.

무시험 서류 전형으로, 연장자 우선 선발 방식이다. 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원 초과시 전북지역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접수는 전라중학교 1층 교무실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입학원서와 초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나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등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중 교무실

(063-252-2758) 또는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센터(1544-1294)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전주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중도 탈락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무시험 전형으로, 연령 제한없이 선착순 모집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주고 교무실(063-283-3050)이나 행정실(063-283-0213)로, 전주여고는 행정실(063-710-5561)로 하면 된다.

한편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가정형편이나 기타 사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 학업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정규 공립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